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26(土)	27(日)
구름 조금 -4/4℃	맑음 -4/5℃

News

- 5·18보상위 폐지 되나 ②
- 나훈아씨 '괴소문' 해명 ③
- 지성·영표 27일 맞대결 ⑧

Books

- 스티븐 킹 신작 출간 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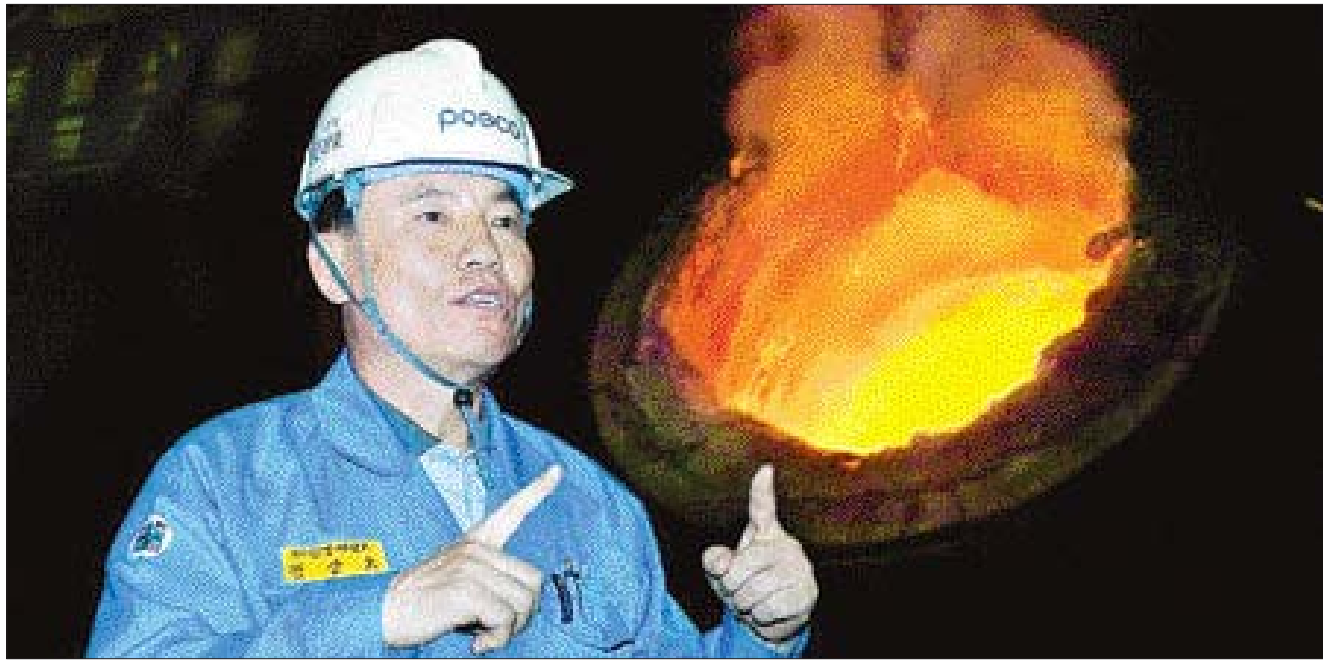
Entertainment

- 신인 등용문 오디션 ⑧
- 영화계 여감독 맹활약 ⑨

Wellbeing

- 식품 탐구-영지 ⑬

35년 정든 삶터 떠나는 '쇳물명장' 광양제철 전상호씨



25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강부 용광로 앞에서 전상호씨가 쇳물에서 탄소와 황 등 각종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강공정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kwangju.co.kr

“쇳물처럼 정직한 것이 없제”

“쇳물은 저의 삶 자체였는데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납니다. 정성을 들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쇳물처럼 정직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광로에서 한꺼번에 280톤의 쇳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숨이 막힐 듯한 열기로 가득 찬 광양제철소의 제강(製鋼)부. 이마에 맺힌 굵은 땀방울을 연방 훔쳐내는 '명장' 전상호(60·부(副)관리직)씨를 25일 만났다.

고된 작업 후회 한적 없어

제강부는 용광로에서 갖 나온 불순물 많은 쇳물에 산소를 불어 넣어 탄소와 황 등을 제거하는 곳이다.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외부의 강한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강(鋼)철이 된다.

오는 3월 31일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그는 말단 직공으로 출발해 대한민국 최고 '쇳물 명장'에 오른 엔지니어다. 제강부에 서만 35년 동안 한 우물을 파며 쇳물에 관한 '독도의 경지'에 오른 것이다.

“이젠 불꽃의 모양과 색깔 보고도 쇳물의 온도와 탄소 함량을 알 수 있습니다. 쇳

물의 순도는 순간 대응력이 좌우하기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긴장을 늦추선 안돼요.”

불꽃의 모양에 따라 탄소의 함량이 다르다는 전상호 명장. 삼각형 모양의 불꽃은 탄소 함유량이 0.04%라고 한다. 전씨의 이러한 기술 노하우는 끊임없는 자기계발의 결과이다. 광양제철소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었지만, 품질을 좌우하는 제강공정은 여전히 엔지니어의 '판단'이 필요한 곳이다. 10년 이상 일하면서 선배들의 '노하우'를 전수받지만, 자신만의 노하우로 만드는 데는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전에는 다 끓인 쇳물을 수저모양의 기구로 떠서 색깔을 점검하고 분석실에 보내야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소음과 뜨거운 열기를 참으며 해야 하는 고된 작업을 쉬는 날 없이 했었습니다.”

인천에서 가난한 농부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그의 삶은 광양제철소에서 '신화'로 통한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인하 공전 기계과를 졸업하는데 만족했던 그는 군복무를 마친 후 서울 세운상가에서 1만 원을 받으며 생활했던 적도 있었다.

그러다 월급 2만4천원의 직공을 모집한

다는 포항제철의 광고를 접했다. 꿈 같은 기대였으나 입사시험에 합격, '쇳물 인생'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맞을 수 있었다. 입사 후 각고의 노력 끝에 5년 만에 반장으로 승진하고, 다시 8년 만에 주임으로 승진했다.

쇳물 공정 '제강 교본' 펴내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인원의 0.05%를 뽑아 '기술의 성인'으로 인증해주는 장년 연장제주는 기성(技成)제도에 도전한 끝에 지난 1995년 포스코의 '기성보'와 대한민국 '명장'의 영예를 동시에 안았다.

이후 그는 포스코에서 제1호로 제강기 능력으로 합격한데 이어 최근에는 순천대학교에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다. 그가 지금까지 획득한 실용신안과 특허만 9건, 기능장과 기술사 등 국가 자격증도 5개에 달한다. 그가 집필한 제강 교본 10권은 후배들에게는 '제강의 바이블'로 통한다.

그는 “나이를 먹는다고 평생 익힌 기술까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또 다른 출발을 다짐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타르 피해’ 전남 어민 생계자금 167억 지원

타르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어민들에게 긴급 생계자금 167억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건의한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생계자금 300억 원 지원 문제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액수 등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원액수는 태안지역 어민들과 형평에 맞게 가구당 평균 200만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피해를 입은 8천377어구에 총 167억여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자금이 내려오는 대로 설 이전에 피해 어민들에게 지급할 방침이지만 국무회의의 결정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설 이전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피해어민 및 피해조사 기관 관계자, 해당 시·군 부군수 등이 모여 수차례 회의를 열어 사업 유형에 따른 가중치 부여 등을 통한 특별 생계자금 배분기준을 결정했다.

이날까지 전남에서는 연인원 7만5천794명이 동원돼 타르 담어리 1천528t을 수거, 이 중 49.7%인 760t이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의해 처리됐다.

한편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26일 목포를 방문해 목포해역에서 방재현황을 취회하고 피해를 입은 무안지역 양식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새 총리 한승수씨 내정

대통령실장 유우익 교수 유력... 내주 초 발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내주 초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지명자를 공식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25일 밝혔다.

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재 정밀검증 절차가 끝나지 않았고, 필요한 검증과정도 다 마치지 않았다”면서 “금주 중으로는 총리 인선 결과를 발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상하건대 내주 초에는 총리 지명자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측근들에 따르면 새 정부 초대 총리에 한승수(사진) 유엔 기후변화특사가 사실상 내정된 상태이고, 대통령실장(현 청와대 비서실장)에는 유우익 서울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은 현재 총리와 각료 후보군을 직접 면접중이며 전날에는 시내 모처에서 한 특사를 만나 총리직 의사 타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선인측은 그러나 아직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내정 통보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한승수 특사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미 대사, 상공부장



관, 외교부장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유엔총회 의장 등 풍부한 국경·외교경험을 갖춘데다 13,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치력까지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한 특사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인척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유우익 교수는 이 당선인의 오랜 측근이자 정책참모로, 이 당선인의 의중을 가장 잘 꿰뚫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통령직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인 강만수 전 재경원 차관, 교육과 학부 장관에 숙명여대 총장인 이경숙 대통령 직인수위위원, 문화부 장관에 대통령 취임준비위원장인 박범훈 중앙대 총장, 보건복지여성부 장관에 재선의 전채희 의원이 각각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장에는 김성호 전 법무장관이 급부상하고 있다. /연철뉴스

유망직업 전망 55년 역사와 전통

공주대학교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

062-2200-5000